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보양이 작갑사 즉 운문선사를 세운 까닭은?

삼국통일 발원과 불법 흥포 위해 창건

1. 나말여초의 대표 선사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하지만 책의 이름 때문에 삼국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책은 '삼국의 빠진 이야기'라는 서명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이었던 찬술사 일연(一然)과 그의 제자 무극 혼구(無極混丘)의 역사관을 투영시켜 중세 고려의 역사도 틈틈이 담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태조 왕건(王健)을 가리키는 '아태조'(我太祖) 및 고려 태조 시절의 몇몇 기록이 이를 반증해 준다. 또 「기이」편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景俊)대왕'과 '후백제의 견훤' 조목처럼 고려 태조와 경쟁하다 귀부한 두 왕의 전기도 실려 있다. 때문에 이들 기록들은 당시를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의해』편의 '보양이목'(寶壤梨木) 조목 역시 신라 말과 고려 초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양이목'은 '원광서학'(圓光西學) 조목과 연이어 있어 편찬상의 혼란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통용되는 종종 임신본(1512)에 의하면 '원광서학' 조목임에도 불구하고 말미 부분에는 보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연은 '원광서학'의 말미에서 "고려의 김적명(金積明)은 항간의 말을 잘못 윤색하여 「원광법사」전을 만들면서 운문사 개산조인 보양의 사적을 합쳐 하나의 전기로 만들었다. 그런데 뒷날 각운(覺運)은 『해동고승전』을 지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기록과 자신의 글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한 자도 가감하지 않고 두 전기를 자세히 기록했다"고 하였다.

일연은 「보양전」에서 보양의 고향과 성씨의 내력을 자세히 실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그는 청도군(淸道郡)의 서적들을 참고하여 보양의 행장을 재구성하고 있다. 천복(天福) 8년 계묘년(고려 태조 26) 정월 어느 날, 청도군 계리심사(界理審使) 순영(順英) 대내말(大乃末)과 수문(水文) 등이 주첩(柱貼)한 공문을 인용하여 "운문사(雲門寺)의 경계표(長生標)는 남쪽은 아니점(阿尼點), 동쪽은 가서현(嘉西峴)이라 했다." 그리고 "이곳 분사 삼강전의 주인은 보양화상이며, 원주(院主)는 현회장로(玄會長老)이고, 정좌(眞座)는 현량상좌(玄良上座)이며, 직세(直歲)는 신원선사(信元禪師)라고 하였다." 또 "개운(開運) 3년 병진년(946, 병오), 운문산 선원의 장생표탑 공문의 하나에는 장생(長生)이 11곳이니 아니점, 가서현, 무현(無峴), 서북매현(西北買峴), 북적족문(北猪足門) 등"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경인년 진양부(晉陽府)의 첨문에는 5도 안찰사가 각도 선교(禪敎) 사원이 세워진 연월과 내력 등을 조사하여 문서를 만들 때 차사원(差使員)이었던 동경의 장서기(掌書記) 이선이 조사한 기록에는 정풍(正豊) 6년 신사년(1161) 9월, 군의 옛 전직인 「비보기」(裨補記)에 준하면, 청도군의 전 부호장 어모부위(禦侮副尉) 이척정(李則楨)의 집에 옛 사람들의 행적과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있다. 비술에서 물러난 상호장 김양신(金亮辛)과 호장 민욱(民育), 호장 동정(同正), 유운(尹運), 전기인(前其人) 진기(珍奇) 등과 당시의 상호장인 용성(用成) 등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의 태수 이사로(李思魯), 호

장 김양신은 나이 89세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70세 이상이었는데 용성도 60세 이상이라 했다"고 적었다. 이처럼 일연은 자신이 머물렀던 운문사의 개산조인 보양의 전기를 재구성하기 위해 적극성을 띄었다. 보양에 대한 그의 기술태도는 선사로서의 면모보다는 사가로서의 품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작갑사 즉 운문사의 창사

신라 시대 이래에 청도군의 사원은 큰 사원인 작갑사 이하 중소 사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 사이에 대작갑·소작갑·소보갑·천문갑·가서갑 등 5소갑이 모두 없어지고 다섯 갑주를 대작갑에 합쳐졌다. 작갑사의 시조인 승려 지식(知識, 보양)은 중국에서 불법을 전수받고 돌아올 때 용이 그를 서해에서 궁중으로 맞이하여 경문을 외게 하고 금실로 수놓은 비단 가사 한 벌을 시주하였다. 아울러 이무기(璆目)라는 아들 하나를 시봉으로 삼아 팔려 보내며 부탁하였다. "지금은 삼국이 소란하여 불법에 귀의하는 군왕이 없지만, 만 일 내 아들과 본국으로 돌아가 작갑에 절을 짓고 살면 도적도 피할 것이요, 또한 몇 년이 못 되어 반드시 호법하는 어진 군왕이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이요." 말을 마치고 보양은 용과 헤어져 뒤 돌아와서 이 계곡에 이르렀다.

삼국유사, 고려 역사도 틈틈이 조망 일연, <보양전>에 보양 내력 안 실어 청도군 서적 참고해 보양 전기 재구성 보양법사, 운문사 전신인 작갑사 창건

시 호법하는 어진 군왕이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이요." 말을 마치고 보양은 용과 헤어져 뒤 돌아와서 이 계곡에 이르렀다.

홀연히 원광(圓光)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노승이 인계(印櫃)를 안고 나타나서 건네주고는 사라졌다. 일연은 여기에서 "원광이 진(陳)나라 말년에 중국에 갔다가 개황(開皇) 연간에 돌아와 가서갑에 머물렀고, 황룡사에서 죽었으니 청대(淸代) 초까지는 무려 3백여 년이다. 지금 여러 갑사가 황폐한 것을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보양이 와서 장차 절을 일으켜 세울려 한 것을 기뻐하여 알린 것이다"고 할주를 붙였다. 보양은 황폐해진 절을 중흥하고자 북경(北嶺)에 올라가 바라보니, 뜰에 5층의 누런 탑이 있어 내려와 찾으니 자취가 없었다. 다시 올라가 바라보니 여러 마리의 까치가 땅을 쪼고 있었다. 해서 서해 용왕이 말하는 작갑을 생각하고 찾아가 땅을 파보니 벽돌이 없었다. 이에 이전 시절의 절터인 줄 깨닫고 절을 짓고 머무르며 작갑사라고 하였다. 얼마 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법사가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다섯 갑의 전지 5백결을 합하여 이 절에 헌납하고 청대 4년(천복 2년) 정유년(937)에 운문선사(雲門禪師)라는 편액을 내려 가사의 신령한 유덕을 받게 하였다.

그 사이 이무기는 절 옆에 늘 살면서 보양의 불법 교화를 도왔다. 어느 해 갑자가 몹시 가물어 채소가 타들어가고 말았다. 보양이 이무기에게 비를 내리도록 일렀다. 이무기가 비를 내리자 한 경내가 비에 흠



후삼국 통일을 위해 왕건을 도왔던 보양 선사는 작갑사를 중창했다. 934년 고려 태조 왕건은 보양 선사의 공에 대한 보답으로 '운문선사(雲門禪師)'라는 사액을 내렸으며, 전지 500결을 하사했다. 사진은 운문사 범종루 전경

족히 졌었다. 천제(天帝)는 자신도 모르게 비를 내린 죄로 이무기를 죽이려 하였다. 이무기가 사정이 급하게 되어 법사에게 말하였다. 법사는 이무기를 마루 밑에 숨겼다. 조금 있다가 천사(天使)가 와서 이무기를 내놓으라고 청하였다. 보양이 뜰 앞의 배나무[梨木]를 가리키자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 울러갔다. 벼락을 맞은 배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이무기가 쓰다듬자 곧 되살아났다. 그 나무가 근년에 쓰러지자 어떤 사람이 그 나무로 방망이를 만들어 법당과 식당에 두었다. 그 방망이의 자루에 다음과 같은 문명이 있었다.

처음에 법사가 당나라에 들어갔다 돌아와 추화군(推化郡) 봉성사(奉聖寺)에 머물렀다. 마침 고려 태조가 동쪽을 정벌하는 길에 청도군 경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적들은 견성(犬城, 산봉우리가 물에 뽀족하게 서 있어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여 견성이라 하였다)에 모여 오만해지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태조가 산 아래에 이르러 보양에게 쉽게 제압할 계책을 물었다. 보양이 대답하였다. "무릇 개라고 하는 것은 밤에만 지키고 낮에는 지키지 않으며, 앞만 지키고 뒤를 잇는 것이니 마땅히 낮에 견성의 북쪽

을 치소서." 태조가 그 말대로 하자 산적들은 과연 항복하였다. 태조는 보양의 신룡한 계락을 가상하여 여겨 해마다 가까운 고을의 세금 비 50섬을 주어 향화로 쓰게 하였다. 그래서 그 절에 태조와 보양 두 성인의 초상을 모시고 봉성사라고 하였다. 뒤에 법사는 작갑사로 처소를 옮겨서 불법을 크게 개창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3. 보양전의 부전 문제

그런데 보양법사의 옛 전기에는 그 행장이 실려 있지 않았다. 아마도 언급한 것처럼 김적명이 항간의 말을 잘못 윤색하여 『원광법사전』 출간시 운문사 개산조사인 보양의 사적을 합쳐 하나의 전기로 만들면서 뒷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일까? 속전에는 의하면 보양은 석굴사의 비허(備虛)와 형제가 되었다. 아마도 비허는 보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도반으로 짐작된다. 이들 두 사람은 봉성사와 석굴사와 운문사 세 절의 봉우리를 마주하며 서로 왕래했다고 전한다. 일연은 "후세 사람들이 『신라(新羅)이전』(新羅(新)異傳)을 개작하면서 함부로 탐을 짓고, 이무기의 일을 『원광법사전』 속에 기록

하고, 견성의 사실은 『비허전』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동(高)승전』을 지은 이가 그대로 따라서 윤색하여 보양의 전기를 없애 후세 사람이 의심하고 잘못 알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라며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일연은 만년에 운문사에 머무르며 『삼국유사』의 많은 부분을 집필하였다. 그는 운문사에 머물며 이 절의 개조인 보양법사의 전기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연은 『삼국유사』 각 조목 내용의 활주(劄註)에서 뿐만 아니라 각 조목의 말미에 '상시논지'(嘗試論之, 아도기라), 또는 '의월'(議曰, 아도기라), 혹은 '의월'(義曰, 가락국기), 나아가 '전월'(讀曰)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저술이 아니라 종래 서적을 종합한 편집적 성격이 강한 저술이라는 세평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준다. 일연은 활주에서나 각 조목 말미에서의 종합 정리 및 찬시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사가로서의 면모와 문화인으로서의 품모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보양의 행장이 옛 전기에 실리지 않았던 것


고려 태조, 보양의 신통력 높이사 상내려 태조 작갑사에 '운문선사'라는 편액 하사 일연, 운문사서 <삼국유사> 대부분 집필 보양은 일연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일연의 투철한 역사의식에 비롯된다. 보양과 같은 주요한 인물의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행장들인 『신라수이전』과 『원광법사전』과 『비허전』 등에 흠어져 실린 것들에 대해 일연은 당시 사가들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의 결핍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해동고승전』의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어 보양의 전기를 온전히 재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술들의 오류를 그대로 따라 윤색하여 보양의 전기를 없애고 후세 사람들이 의심하고 잘못 알게 하였다며 그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성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보양이목' 조에 나타난 일연의 인식을 통해 『해동고승전』의 역사의식과 『삼국유사』의 역사 인식의 동이를 읽어낼 수 있다. 동시에 『삼국사기』의 역사의식과 『삼국유사』의 역사인식의 차이도 아울러 읽어낼 수 있다. 운문사의 개조인 보양의 전기와 그곳에 머물며 『삼국유사』의 대부분을 기술한 일연의 의식의 상통점을 읽어낼 수 있다. 나아가 김부식과 각운의 역사의식과 일연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우리는 이 조목을 통해 보양이 일연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일연, 『삼국유사』, 권성호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삼보 귀의 하옵고!
여래불교 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 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중단, 청정중단, 열린중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중단으로 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여래불교 조계종 중단과 함께 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종정무역	- 입종서류 -
총무원장 현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 중단 가입 신청서 1부
총회위원장 해건 (성남시 보통정사)	• 사찰등록 신청서 1부
사무총장 자운 (서울 상도동 미타사)	• 반명함 사진 3매
감찰위원장 법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 주민등록 등본 1부
교육위원장 중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 승적증빙서류(타 중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각 1부
문화위원장 향지 (성남시 향지선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중단 총무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교위원장 만경 (춘천시 은의동 보통정사)	• 본 중단은 개인 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불기2556(2012)년 가입 종도는 입종비를 면제 하여 드립니다.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산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 2282 - 5830 / 010-6710-8300(사무총장)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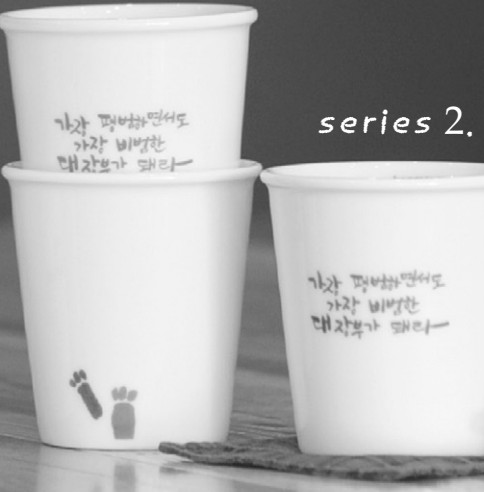
도자기

범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종류	구성	판매가
A set	마음 + 대장부	9,000
B set	마음 + 마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통합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